

## “한국형 CSA 등 재수립해야”

〈공동체 지원 농업〉

### 기획탐사 - 광주·전남 로컬푸드 직매장 허와 실

〈하〉 활성화 방향은

‘팔리지 않는 채소 가져가라’ 영세·고령농 적자 고리 수익 내는 농가도 상품관리·도심 공급 어려움은 여전 자체생산 어려운 품목 인근 시·군서 공급제도화 필요 가공·반가공식품 인정... 드라이브 스루 등 고민할 때

#1 지난 2018년부터 전남지역 군 단 위 로컬푸드 직매장에 상추, 대파, 쪽 파 등 10여 품목의 채소류를 출하하고 있는 이 모씨(73·여)는 해마다 이 어지는 적자에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. 약 60평의 밭에서 출하를 위해 고 된 작업을 하지만 매월 적자만 쌓이고 있는 탓이다. 간혹 흑자가 나는 달에 도 수입은 30만원 언저리가 고작이 다.

이씨는 “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,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영세·고령농들 에게는 그림의 떡이다”며 “로컬푸드 가 소량 다품종 재배로 빠르게 변화하 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농들은 적은 면 적에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할 수 없

#2 화순에서 700평의 밭을 가지고 양 파, 감자, 블루베리, 백향과 등 약 20 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문인규씨 (72). 문씨는 식당과 농사를 병행하 고도 월 80만원 정도의 수익으로 어 렵게 생계를 꾸려오다 지난 2015년 로컬푸드를 시작하면서 얼굴에 가득 하던 주름이 폈다.

현재 도곡점, 화순점, 광주 남구점 등 3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량을 납품하며 연 2,500만원의 소득을 올 리고 있는 문씨는 다양한 품목과 안전 한 고품질 농산물로 소비자들의 선택 을 받고 있다. 비교적 재배가 어려운 열대과일인 블루베리나 백향과 등을

올뿐더러 상추같은 품목은 많은 농가 들이 출하해 가격경쟁, 과잉생산 등으 로 인해 폐기되거나 수거 대상이 되기 일쑤다”고 토로했다. 이씨는 “채소는 진열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매 우 짧다”며 “최근에는 직매장 직원이 팔리지 않았으니 도로 가져 가라는 횡 포를 부리기도 했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젊은 농가들이 나 대작농들이 판로를 막아버려 영세 농들과 고령농들은 설 자리가 없다” 며 “다른 품목을 도전하고 싶어도 재 배 지식도 짧고 밭 면적이 한정돼 여 러 가지를 병행할 수 없는 만큼 농협 이나 지자체에서 경쟁·과잉생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겠다”고 덧붙였다.

판매해 품목 경쟁을 줄이고 양파 등 뿌리채소를 수시로 재배해 계절에 상 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.

하지만, 농촌에서 각 지역 매장과 광주 도심의 매장까지 출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진열 기간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여전하다는 게 문씨의 설명이다. 그는 “도시와 농촌이라 는 이동거리가 있어 값싸고 질 좋은 상 품을 도시민이 현지로 직접가서 구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”면서 “반대로 도시에 직매장을 설치하면 농민이 상 품관리와 공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 문에 이 같은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 해결해 줘야 한다”고 말했다.

광주·전남지역에서만 지금껏 수백억원 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예산이 투입됐음 에도 불구하고,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아직 갈 길 이 멀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로컬푸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급·판매 방식의 변 화 등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단순히 판매장 수를 늘리기보다 인근 지자체와 연계, 소비자의 직접 참여 등 활 성화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.

상명대 경영학과 양석준 교수는 “로컬 푸드의 단점 중 가장 큰 부분은 매장을 방 문했을 때 품목이 부족해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이 다”며 “자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인근 시군이나 광역지자체 등에서 공급받아 판 매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필 요하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적은 품목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” 며 “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 연구를 통한 가공 식품을 로컬푸드로 인정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”고 덧붙였다.

직매장 사후관리 지침 변경 등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.

농협대학교 남기포 교수는 “로컬푸드 매장을 하나의 유통 채널로 인식하는 문 제점을 지자체와 농협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”며 “생산자·소비자 조직화, 소비자 체험, 농업기술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로컬푸드 직매장 을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”고 말했 다.

남 교수는 “로컬푸드를 소비자와 생산 자가 계약을 맺고 농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CSA(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·공동체지원농업)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”며 “운영방식 과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도 현재에 맞게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”고 덧붙였다.

이밖에 초·중·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학습,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시 대에 대응한 드라이브 스루, 근거리 배송 등 판매 방식의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.

▶2면으로 이어짐 /임채민 기자



27일(한국시간)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페블 비치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스에서 우승을 차지 한 최경주 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. /AFP-연합뉴스

### ‘뱅크’ 최경주 한국인 첫 PGA 챔피언스투어 우승

‘코리아 뱅크’ 최경주(51)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(PGA) 챔피언스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.

▶관련기사 14면 최경주는 27일(한국시간) 미국 캘리포 니아주 몬테레이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 (파72)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투어 퓨 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스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

더파 68타를 쳤다.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오른 최경주는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 투어 무대에서 한국인 첫

우승의 주인공이 됐다. 최경주는 2002년 5월 컴백 클래식에서 우승, 한국인 최초로 PGA 정규 투어 대 회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시니어 무대에

서도 한국인 첫 우승 기록을 남겨 한국 골 프의 선구자다운 역할을 또 해냈다.

지난주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연장 접 전 끝에 준우승한 아쉬움을 1주일 만에 우승 고지에 오르며 시원하게 털어냈다.

2012년 10월 자신이 호스트로 나섰던 한국프로골프(KPGA) 코리아투어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약 9년 만에 공식 대 회에서 우승한 최경주는 30일 경기도 여 주시에서 개막하는 KPGA 코리아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 기 위해 귀국한다. /연합뉴스

## 광주·전남 통합 밀그림 그리기 착수

### 내달 연구용역 협약 체결

광주·전남 행정통합의 밀그림을 제시 할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. 용역 기간이 1 년인 점을 고려할 때 광주·전남 행정통합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.

27일 광주시,전남도, 광주전남연구원 에 따르면 시와 도는 연구원에서 수행할 연구 용역 과업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 치고 오는 10월 3차 간 협약을 체결할 예 정이다.

연구원은 ▲행정 통합 ▲부울경(부산· 울산·경남) 메가시티와 같은 형태의 경 제 통합 ▲초광역 협력 등 방식별로 장단 점을 비교·분석할 방침이다. 각각 방식에 따른 사회간접자본, 산업·경제, 문화, 환 경 등 분야별 영향을 예측한다.

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 사는 용역 1년, 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 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하 기로 지난해 11월 2일 합의했다.

시·도는 통합을 민간중심으로 논의하 고, 용역 1년 이후 6개월간 검토를 거친

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6개 항목에 합의했다. 합의문 에는 ‘통합논의는 시·도민 화합과 소통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, 시·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돼야 한다’는 전제조건을 명시했다.

광주시 관계자는 “광주시와 전남도는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과업 지시서를 지난 주 연구원에 전달했다”면서 “연구원에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용역이 시작될 것 이다”고 말했다.

/황애란 기자

#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!!



다스코(주)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
## 2023년 매출 5,000억원 목표



SOC사업

가드레일 / 교량난간 / 터널 방음벽 / 방음벽



신재생 e.사업

육상태양광 / 수상태양광



건축자재사업

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/ 스틸 데크플레이트  
경질우레탄폼 단열재



WBM사업

구조용 선조립 / 용접철근(WBM)  
BIM모델링

##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.